

미국, 미얀마의 일반특혜관세(GSP) 지위 재부여

김미림 연구원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 주요 내용

- 2016년 9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남은 제재를 곧 해제하고 미얀마의 GSP 지위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2016년 출범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의 GSP 재부여가 미얀마의 대미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고려할 때, GSP 재부여의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미얀마의 수출 증가에는 금융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2016년 9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남은 제재를 곧 해제¹⁾하고 미얀마의 GSP 지위를 다시 부여²⁾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 의회 공지 기간 60일 후인 11월 13일부터 미얀마 수출품에 GSP가 적용됨.
 - 미얀마가 GSP 최빈개도국(LDC)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대상품목 3,500개 뿐 아니라 최빈개도국에게 부여되는 품목 1,500개까지 총 5,000여개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2016년 출범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은 미얀마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이행에 따라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음.
- 군부정권 시기 아웅산 수치는 제재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2012년 이후 찬성으로 입장이 변화함.
 - 미국은 2003년 포괄적인 경제제재(수입 금지, 자산 동결, 금융 제재)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금융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음.

미국의 GSP 재부여가 미얀마의 대미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GSP 재부여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미얀마 수출 품목으로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GSP 적격(eligible) 품목은 대부분 가공품과 반가공품(특히 가전제품, 기계류 및 부품) 품목들이며, 일부 농수산물과 1차 산업 제품을 포함함.
- 대부분의 섬유 및 의류제품은 시계, 신발, 핸드백, 가방, 기타 가죽제품, 대통령이 수입 민감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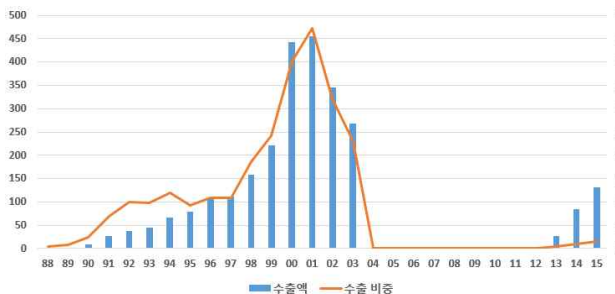
1) 2016년 9월 20일 주 미얀마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특별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에서 104개 이름이 삭제될 것이나 일부 개인은 마약 거래나 북한과의 거래 등을 인해 특별제재대상에 잔존할 것이라고 밝힘.

2) 미얀마는 미국이 GSP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1974년부터 대상국이었으나 미얀마 군부 독재로 인해 1989년 대상국에서 제외됨.

으로 결정한 품목(전자, 철강, 유리 제품 등)과 함께 GSP 규정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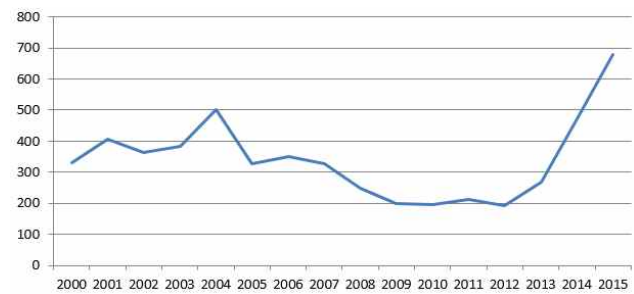
-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GSP 수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제 전통제품(folkloric products)은 GSP 수혜를 받고 있음.
 - 미국은 수제 전통제품에 대해 GSP 적격성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받은 협정을 16개 수혜국(캄보디아, 콜롬비아 등)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협정은 우선적으로 수혜국의 농촌거주자, 빈곤자, 여성 등에 의해 생산된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을 두고 있음.
 - 미국이 2010년 GSP를 통해 수입한 품목 중 섬유, 의류가 차지한 비중은 3%, 연료(석유 등)의 비중은 29%였음.
 - 미국의 대표적인 특혜관세제도 중 하나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GSP 제외)의 적격 품목에는 GSP에서 제외된 섬유, 의류 상품이 포함됨³⁾.
- EU GSP 프로그램은 미얀마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Everything But Arms, EBA)에 대하여 무관세, 무쿼터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 GSP에서는 제외된 섬유, 의류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2013년 EU가 미얀마에 GSP 지위를 다시 부여한 이후 미얀마의 EU 수출이 증가하였고, 2014년 미얀마의 EU 수출품 중 의류가 약 60%를 차지하였음.

그림 1. 미얀마의 미국 수출 추이(1988~2015)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OTS

그림 2. 미얀마의 EU 수출 추이(2000~2015)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OTS

- 미국 GSP 프로그램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①수혜국에서 생산, 제조되어야 하며⁴⁾ ②수혜국가로부터 직접 미국으로 수입되어야 하고 ③수혜국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과 수혜국이나 지역공동체에서 수행된 가공공정 중 발생한 직접비용의 합이 수출거래금액(appraised value)의 35%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조미진 외(20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수혜국에서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 또는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희석 등의 단순 과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수 없음.

- EU EBA 의류 원산지 기준은 GSP 원산지 기준인 Fabric forward보다 완화된 것으로 Fabric forward보다 낮은 단계의 재단 및 봉제 수행 시에도 EU GSP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전망 및 시사점

미국 GSP 적격 품목 및 원산지 규정을 고려할 때, GSP 재부여의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미얀마의 수출 증가에는 금융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GSP는 혜택일 수 있으나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단기간에 수출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음.
- 미얀마 GSP 부여로 한인봉제기업들이 미국수출이 확대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음.
- 향후 제재해제에서 핵심은 금융제재의 완전한 해제로 이는 지금까지의 부분적 금융제재 해제는 현실적으로 미얀마의 무역을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임.
 - 현재 미얀마 주요 기업들이 특별제재대상이고 미국 정부 당국은 미국은행은 물론 미국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이 특별제재대상과 거래한 것이 적발될 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함⁵⁾.
 - 미얀마의 개인 혹은 법인과 금융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제재대상 확인을 위한 관련증빙서류 제출 등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수출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EMERiCs

출처

Financial Times, IHS Global, Nikkei Asian Review 및 연구자료

5) 2014년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는 2002년~2009년 이란, 수단, 쿠바 및 미얀마 등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1,900억 불 이상의 달러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 당국으로부터 89.2억 불의 벌금을 선고받음(참고: 2012년 HSBC 19억 불, 미국SC 6.7억 불, 도쿄미쓰비시 2.5억 불 벌금 선고).